

대포통장으로 5062억 세탁한 점조직 179명 검거

광주경찰청,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조직 적발 계좌 300개·텔레그램 등 추적...총책 등 12명 구속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506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대포통장 107개로 세탁한 전국 단위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2개 조직의 총책·관리책 등 19명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모두 179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A조직은 대포통장 62개를 이용해 약 4828억원을 세탁했다. 관련 피의자는 128명으로,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B조직은 대포통장 45개를 이용해 약 234억원을 세탁했으며, 관련 피의자 51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두 조직이 세탁한 금액을 합치면 약 506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의 세탁을 의뢰받으면 총책이 세탁 금액과 수수료를 협의하고, 관리책이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입금 확인·이체 지시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 시간을 전달했고, 자금 이체책은 입금된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한 뒤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대상이 되면 즉시 다른 대포통장으로 교체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직원들은 서로의 실제 신원을 모른 채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만 수행했다. 경

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명만으로 지시를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조직이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포통장에 거래이 입금된 직후 여러 계좌로 분산·재이체되는 비정상적인 금융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금융계좌 약 300개와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등을 분석했다.

금융거래 시각과 텔레그램 지시 내용,

모바일뱅킹 접속정보, 폐쇄회로(CC)TV, 차량 이동 동선 등을 교차 분석해 조직원별 역할과 상·하위 지휘관계를 특정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총책과 관리책, 자금 이체책 등 핵심 조직원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휘·통솔 체계 아래 역할을 나눠 지속적으로 자금세탁에 가담한 총책·관리책 등 19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160명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 제공자로, 전자금용거래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일부 명의 제공자들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고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은 조직원들의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일부 피의자는 세탁 수수료로 받은 돈으로 보증금 11억원, 월세 5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2억4300만원과 시가 약 1억3000만원, 2000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 2점, 고급 의류 등을 확보했다. 또 총책 등 8명의 입차보증금과 차량 등 재산을 추적해 약 2억9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의 대가를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폭염 속 겨울왕국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광주실내빙상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팅을 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 행사 발전 방향 모색

내일 전일빌딩서 평가토론회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를 되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10일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가토론회는 올해 기념행사 추진 과정을 참가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5·18 기념행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토론회는 행사·모니터링 결과 보고와 행사 총평, 발전 방향 발표로 나뉘

진행된다.

행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정선기 모니터링 단장이 발표하며, 정봉남 집행위원장이 46주년 기념행사 총평과 조직 부문, 사업 부문으로 나뉜 주요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는다. 이어 지병근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장이 ‘5·18민중항쟁기념행사 발전 방향’을 주제로 향후 기념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평가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위 사무처 (062-352-0518)로 문의하면 된다.

위경중 상임행사위원장은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는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기념행사의 성과와 과제가 다음 50주년 기념행사로 나아가는 나침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냉방기기 사용 ‘급증’ 전남광주 정전 잇따라

폭염 속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남·광주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다. 정전이 발생하면 냉방기기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승강기 운행과 상가 영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10일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기상청이 장마 종료를 선언한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정전 관련 출동은 모두 2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12건, 전남 14건이다.

지난달 26일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에서는 배전반에서 불이 나 90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주민 100

이달 3일부터 4일 사이에는 해남에서 조류 접촉, 담양에서 낙뢰로 각각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남 140가구, 담양 737가구 등 모두 877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소방과 한전의 집계에는 일부 중복 사례가 포함돼 있지만, 폭염이 본격화한 이후 광주·전남에서 정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정전이 단순한 생활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폭염 속 아파트 정전은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을 어렵게 해 고령자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승강기 운행과 공동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장마 끝난 뒤 보름여간 소방 26건·한전 9건 집계

승강기 운행·상가 영업 등 차질...“각별한 관리”

여명이 대피했고, 복구 과정에서 일부 세대는 수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북구는 정전 피해 세대에 아침식사와 2ℓ 생수 200개 등을 지원했으며, 17세대 44명에게 하루 8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해 모두 226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달 30일 여수에서는 변압기 과부하로 248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무안군 삼향읍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하 전기실 화재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전력이 별도로 집계한 정전 건수도 적지 않다.

같은 기간 한전 광주전남본부가 집계한 정전은 9건으로, 피해 가구는 모두 2119가구에 달했다.

지난달 26일 진도에서는 배전선 화재로 520가구가 정전됐으며, 이달 2일 고흥에서는 절연설비인 애자가 파손되면서 231가구의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

이 멈추는 것은 물론 상가의 냉장·냉동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영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와 폭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61일간 광주·전남 지역 주요 전력설비 96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전이 잇따르면서 혹서기 전력설비에 대한 상시 점검과 노후 설비 교체, 자연재해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소방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여러 가전제품을 하나의 멀티탭에 과도하게 연결하지 말고 전선과 플러그, 실외기 등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